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과 재발위험성의 관계에서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음주기대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Problem Focused and Emotion Focused Coping, Drinking Anticipation Between the Female Alcoholics Traumatic Experienced and Their Warning of Relapse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a-Hee Woo(jhwoo@cup.ac.kr)

요약

본 연구는 신체적, 성적 학대의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알코올중독 재발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파악하여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을 재발에 이르게 하는 스트레스대처와 음주기대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알코올중독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성적 외상경험관련 특성은 18세 이전 지인에 의한 신체적 성적 학대경험이 18세 이후의 경험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총 10개의 직접경로 중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셋째,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음주기대를 매개로 하는 6개의 간접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여성 알코올중독자 | 외상경험 | 문제중심 · 정서중심 대처 | 음주기대 | 재발 위험성 |

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s to investigate parameters which effect on the relapse of alcoholism, to understand psychological factors for stress control and drinking anticipation which lead to the relapse of female alcoholism and to seek practical ways in social welfare for alcoholism, focusing on the traumatic experiences and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of female alcoholics experienced physical, sexual abus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 related with physical, sexual traumatic experiences of subjects is that physical, sexual abuses by acquaintances under 18 is more common than that experiences over 18. Second, the 8 paths among 10 direct path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s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through parameters, in the model, 4 out of 6 indirect pathes parameterized as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problem focused coping, and drinking anticipation a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warning of relapse of female alcoholics had been discussed.

■ keyword : | Female Alcoholics | Traumatic Experiences | Problem Focused and Emotion Focused Coping | Drinking Anticipation | Warning of Relaps |

I. 서론

외상경험은 지속적, 반복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진행과정 특성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상경험을 한 여성알코올중독자에게 문제유증을 더욱 유발하게 한다. 따라서 외상경험은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반복된 음주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소이다. 최근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알코올 중독자는 약 402,500여 명으로 이는 알코올 사용 장애 전체 인구의 22.4%에 해당한다[1]. 여성알코올중독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은 여성알코올중독자의 특성에 맞는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암시한다. 여성의 음주패턴은 성격, 폭력경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다[2].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은 어린 시절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어린 시절에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 받은 경험은 여성의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3][4]. 국내 연구에서도 병원입원환자나 쉼터 등에 입소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일수록 폭력경험, 이혼 등의 문제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5]. 알코올중독과 외상경험은 특히, 여성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상 사건의 발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이처럼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은 중독과정에 외상경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5]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알코올중독 과정과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상경험과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밝혔듯이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은 재발에 이르는 중독과정에서 우울증, 낮은 자존감, 상실감 등의 심리적인 취약성이 동반된다고 했다[7-9]. 이러한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의 재발과정에서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상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변인과 재발을 연관 지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Marlatt and Gordon(1985)은 재발 과정에 대한 중독행동 모형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음주기대가 재발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10]. 즉, 내적, 외적 고위험 상황에서 건강한 대처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음주결과 기대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술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에 술을 만신다고 한다[11].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성적 학대 외상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외상경험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험으로 성적, 신체적 학대, 정서적 모욕, 지속되는 폭행, 전쟁, 자연재해 등 개인에게 강한 공포감, 두려움 및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한다[12]. 외상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유발하는데 그 중 알코올 및 약물중독은 대표적인 자기 파괴 행동중 하나이다. 여성알코올중독의 특성상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과 상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위험요인이 남성알코올중독자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 사건의 발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3]. 국외연구로는 아동기의 외상 경험 뿐 아니라 사춘기 이후 상실경험, 결혼 후 배우자나 타인에 의한 상처 경험 역시 여성의 음주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이나 별거,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 자녀의 가출, 가정폭력, 부부나 시댁과의 갈등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 사건의 노출, 상실경험이 음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14][15].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 고위험 음주의 원인을 어릴적 학대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인 문제경험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5].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는 정서조절영역, 자기인식영역, 가해자에 대한 인식영역, 신체화 증상 영역, 삶의 의미 영역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 영향이 있다[16]. 따라서, 외상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에게는 외상경험의 내용과 정도가 알코올중독과정에서 다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과 재발위험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와 음주기대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orrow and Smith(1995)는 알코올 사용을 음주 동기에 의해 접근한 구조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서는 기분 증진과 대처를 위한 음주는 기대, 정서, 대처 방

식에서의 개인차가 매개하여 알코올 사용과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7]. 또한 현상적으로 기분 증진을 위한 음주와 대처를 위한 음주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른 행동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학생 집단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은 분노가 매개하였고, 알코올 남용은 우울이 매개하였다[18]. 이때 알코올 남용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은 인지적 기대와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이 중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Marlatt & Gordon(1985)의 재발 방지 모형에서는 대처 방식, 금주 효능감 및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알코올 의존의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10]. Britton(2004)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설명하는 구조 모형에 포함된 심리적 변인들에는 스트레스,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 대처 방식, 낮은 행동 통제력, 대처하기 위한 음주였다고 보고했다[18]. 최종 모형에 포함된 요인은 기대, 낮은 행동 통제력, 대처 방식이었고, 이들이 대처를 위한 음주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직, 간접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Galen and Rogers(2004)은 알코올중독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들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음주기대를 주장했다[19]. 국내 연구에서 임영란(2001)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대처방식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거쳐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19]. 김인석(2001)은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및 남용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음주 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와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이 알코올 사용 및 남용을 독립적으로 예측한다고 했다[21]. 여성알코올중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상황 경험과 알코올중독 재발관련 주요 경험적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대처와 음주기대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발에 대한 고위험 상황에서 대처 능력과 음주기대가 재발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알코올중독자에게 재발의 스트레스상황인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재발위험성의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대처와 음주기대를 재발에 대한 개입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재발위험성의 관계에 스트레스대처방식, 음주기대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가설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대처방식, 음주기대는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재발위험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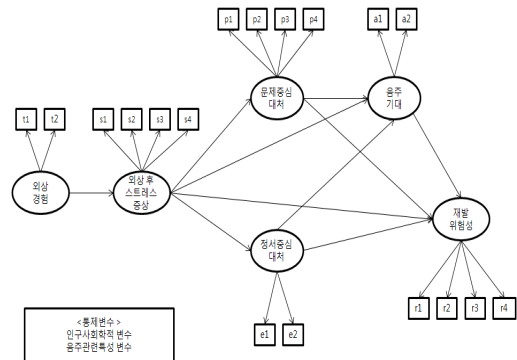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서울과 경인지역의 만 18세 이상의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에 입원중인 여성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알코올중독 진단 측정도구 NAST, MAST, CAGE, AUDIT, DSM-IV 등의 사용으로 진단을 받을 여성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진단을 받은 여성알코올중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비확률 표집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표집대상은 서울 5개구 경인 6개시 지역에 소재한 알코올중독 전문병, 의원에 입원중인 여성알코올중독자이다.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한번 이상의 재발경험

이 있는 244명의 여성알코올중독자 중 외상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여 신체적, 성적 학대 외상경험의 내용과 강도를 조사했다.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 1개 이상, 복수 응답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 227명의 선별된 대상에게만 설문지를 실시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여성알코올 중독자로서 취약대상자의 연구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입하게 되는 개인적인 외상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였고, 조사과정 참여의 자율성과 참여과정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주었다.

3. 변수와 측정도구

3.1 알코올중독 재발위험성

알코올중독 재발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Lowman et al., (1996)가 척도화한 AWARE Questionnaire (Advance Warning of Relapse)의 척도를 사용하였다[22].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다.

3.2 외상경험

외상 경험 척도는 한은미(2010)가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에서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 문항(1, 3, 4, 5, 7번 문항으로 총 5문항) 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23].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다.

3.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Foa et al. (2000)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cale-Interview: PSS-I)를 사용하였다[24].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이다.

3.4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사용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69개 문항의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조성은(2005) 연구에서 문제 중심 대처(29문항)와 정서 중심적 대처(15문항)에 해당하는 44문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25][26].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3.5 음주기대

음주기대척도는 Leigh and Stacy(1993)가 개발한 음주결과 기대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를 사용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김석도(2000)가 변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28].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다.

3.6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업, 교육수준, 종교, 소득, 의료보장형태를 선정하였고, 음주관련 특성 변수로 첫 음주 연령, 가족력, 첫 입원시기, 입원 횟수, 음주 횟수, 1회 음주량, 단주경험, 병식을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고, 넷째, 모형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했으며 유의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외상경험 관련 특성

외상경험척도에 의한 연구대상자의 외상경험 특성을 살펴본 결과 18세 이전 신체적 학대경험(67.6%), 18세 이전 지인의 성적 행동 강요(54.5%), 18세 이전 타인의 성적

표 1.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외상 경험	1.외상경험	1										
	2.외상강도	.633**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3.재경험	.247**	.325**	1								
	4.회피	.274**	.331**	.395**	1							
	5.반응마비	.210**	.331**	.649**	.416**	1						
	6.과각성	.219**	.3051**	.480**	.442**	.589**	1					
스트레스 대처방식	7.문제중심대처	-.288**	-.369**	-.458**	-.139*	-.418**	-.278**	1				
	8.정서중심대처	.356**	.453**	.588**	.402**	.536**	.441**	-.604**	1			
음주 기대	9.긍정음주기대	.270**	.267**	.444**	.248**	.398**	.231**	-.535**	.622**	1		
	10.부정음주기대	.252**	.392**	.526**	.316**	.520**	.342**	-.623**	.785**	.649**	1	
재발	11.재발위험성	.253**	.430**	.536**	.312**	.465**	.407**	-.474**	.747**	.452**	.559**	1

* p<.05, ** p<.01, *** p<.001

행동 강요(11.5%), 18세 이후 지인의 신체적 학대(40.6%), 18세 이후 지인의 성관계 강요(32.4%)로 응답했다.

2.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전체 변수들은 .85를 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85이상 다중공선성이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값이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1에 근접하여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3.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44.280$ (df=120), p=.000, TLI(NNFI)=.929, CFI=.930, RMSEA=.0621)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구조모형 분석

측정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565.908$ (df=124), p=.000, TLI=.918, CFI=.920. RMSEA=.067로 RMSEA의 수치가 0.05보다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매우 좋은 모형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검토한 결과, 수정지수 값이 보수적인 수준에서 권장하

는 10을 초과하는 오차변량이 나타나지 않아 본 모형은 모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기본 모형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다듬기(model trimming)를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음주기대, 문제 중심 대처→재발위험성의 경로를 각각 하나씩 제거하였을 때 모형적합도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최초 연구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최초연구모형과 제거경로모형의 카이제곱 통계량 차이

제거된 경로		$\chi^2(df)$	$\Delta \chi^2(\Delta df)$
최초연구모형		565.908(124)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음주기대		566.760(125)	0.852(1)
문제중심대처 → 재발위험성		566.532(125)	0.624(1)
2개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		567.523(126)	1.165(2)

표 3. 구조모형 분석결과

잠재 변수	경로	표준화 된회귀 계수	비표준화 된 회귀계수	표준 오차	C.R.	P
외상 경험	→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	0.514	0.160	0.030	5.377	0.000***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문제중심대처	-0.789	-0.406	0.061	-6.645	0.000***
	→ 정서중심대처	0.749	1.223	0.114	10.694	0.000***
	→ 음주기대	0.165	0.179	0.161	1.111	0.266
문제 중심 대처	→ 재발위험성	0.147	0.308	0.155	2.045	0.036*
	→ 음주기대	-0.703	-0.885	0.203	4.236	0.000***
정서 중심 대처	→ 재발위험성	-0.231	-0.153	0.236	-0.520	0.603
	→ 음주기대	0.412	0.275	0.131	2.234	0.000***
음주 기대	→ 재발위험성	0.666	0.514	0.165	3.021	0.000***
	→ 음주기대	0.701	0.687	0.247	2.985	0.000***
문제중심대처 ↔ 정서중심대처		-0.840	-0.052	0.011	-4.590	0.000***

$\chi^2=565.908$ (df=124), p=.000, TLI=.918, CFI=.920, RMSEA=.067

* p<.05, ** p<.01, *** p<.001

1) TLI, CFI 모두 0.9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RMSEA가 0.05보다 작을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0.08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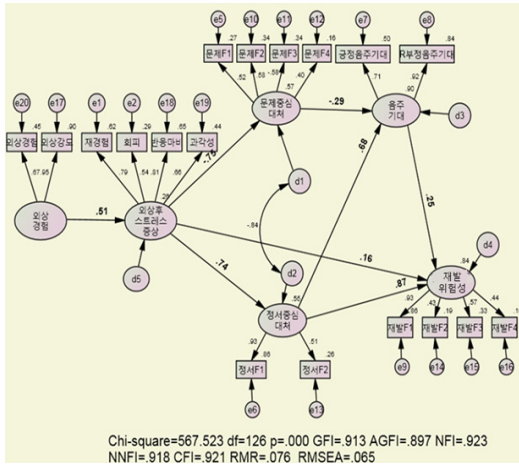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IV. 결론 및 논의

각각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18세 이전 지인에 의한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18세 이후의 경험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중독의 높은 재발율을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29][30] 알코올중독 재활과정에서 재발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요인과 임상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총 10개의 직접경로 중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접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 중심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중독을 알코올중독자가 경험하게 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여”로 보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11].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 중심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장애를 반영하는 증후의 보고가 계획적인 문제해결의 대처와 부적 상관이 있고 정서 중심적 대처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25].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음주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여성알코올중독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음주기대가 클 것이라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중재요인인 문제 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는 음주기대의 중재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알코올중독자는 문제 중심 대처를 적게 할수록 음주기대가 크고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음주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 준다고 볼 때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이 없을 경우 음주가 지속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11]. 다섯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문제 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음주기대와 재발위험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정서중심 대처, 음주기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재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음주기대와 대처자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1].

셋째, 연구모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음주기대를 매개로 하는 6개의 간접경로 중 4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 연구모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과 재발위험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문제, 재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7]. 둘째,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 연구모형에서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문제 중심 대처, 음주기대가 매개되어 재발위험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Marlatt and Gordon(1985:39)의 ‘재발 방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에서 제시한 내용인 “불쾌한 상황,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 등의 고위험 상황에서 대처방식이나 기술이 없을 때 알코올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를 지지한다[10]. 셋째,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 연구모형에서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변수로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정서 중심 대처, 음주기대가 매개되어 재발위험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Marlatt and Gordon(1985:39)의 ‘재발 방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을 지지하는 결과로 “정서 중심적 대처인 부 적응적 대처로 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했다[10].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은 구체적으로 알코올중독 초기 개입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사정 시 반드시 외상경험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이 외상으로 인한 음주 고위험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둘째, 신체적·심리적 학대 외상경험을 한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과정에 대한 개입은 구체적으로 문제 중심 대처능력 증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관련하여 문제 중심 대처능력의 정도, 수준을 개별screening하여 개인마다 특정 대처능력이 결여된 내용과 특정 상황을 파악하여 사회기술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여성알코올중독자들 심리를 이해하고 다루어주는 상담을 실시한다. 개별상담을 통해 정서중심 대처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정서중심대처를 하는 심리를 다루어 주어 여성알코올중독자들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와 스트레스대처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을 한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이 문제 중심 대처를 습득하고, 정서중심 대처를 조절하여 재발의 고위험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알코올중독 재발에 대한 탄력성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탄력성은 단주를 유지하게 하고, 재발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선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개입을 통하여 재발이란 단순한 음주의 파기

가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심리·사회적 기능이고 재발가능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보건복지부, *과량새플랜 2010: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종합계획*, 2006.
- [2]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lcoholism, NIAAA. *Alcohol: A Women's Health Issu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 [3] J. Liebschutz, B. Savetsky, R. Saitz, N. J. Horton, C. Lloyd-Travahlini, and J. H. Same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substance abuse consequences,"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22, pp.121-128, 2002.
- [4] L. S. Bensley, J. V. Eenwyk, and K. W. Simmon, "Self-reported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adult HIV-risk behaviors and heavy drinking," *Drug and Abuse*, Vol.16, pp.297-308, 2000.
- [5] 서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6] C. Colleen and M. S. Youngt, "Autcomes of mandated treatment for women with histories of abuse and co-occurring disorder,"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4, No.2, pp.192-218, 2009.
- [7] M. M. Velasquez, G. G. Maurer, C. Crouch and C. Diclemente, *알코올 및 약물중독환자를 위한 집단치료*, (다사랑병원 알코올 중독연구소 역). 하나의학사, 2003.
- [8] 신행우, *성격과 음주 동기가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9] 탁진국,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건강, 제5권, 제1호, pp.97-125, 2000.
- [10] G. A. Marlatt and J. R. Gordon,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Guilford, 1985.
- [11] 한상암, 신성원,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이 음주 및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 제8권, 제7호, pp.195-200, 2008.
- [12] 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TR(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s Forth Edition., 2000.*
- [13] C. Colleen and M. S. Youngt, "Autcomes of mandated treatment for women with histories of abuse and co-occurring disorder,"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4, No.2, pp.192-218, 2009.
- [14] S. C. Wilsnack, N. D. Vogeltanz, A. D. Klassen, and T. R. Harris, "Childhood sexual abuse and women's substance abuse: National survey finding," Studies on Alcohol, Vol.58, pp.264-271, 1997.
- [15] W. R. Miller, V. S. Westerberg, R. J. Harris, and J. S. Tonigan, "What predicts relapse? Prospective testing of antecedent models," Journal of Addiction Vol.91, pp.155-172, 1996.
- [16] R. G. Blai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major depression among Cambodian refugees in Utah," of Health and Social Work, Vol.25, No.10, pp.23-30, 2000.
- [17] S. L. Morrow and M. L. Smith, "Constructions of survival and coping by women who have survived childhood sexual abuse," Psychology, Vol.42, pp.24-33, 1995.
- [18] P. C. Britton, "The relation of coping strategies to alcohol consumption and alcohol-related consequences in a college sample,"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Vol.12, No.2, pp.103-114, 2004.
- [19] L. W. Galen, and W. M. Rogers, "Religiosity,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motives and their interaction in the prediction of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Studies on Alcohol, Vol.65, pp.469-476, 2004.
- [20] 임영란,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검증 및 심리적 위험인자에 대한 구조모형1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21] 김인석,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22] C. J. Lowman and W. R. Miller, "Perspectives on precipitants of relapse," Addiction, Vol.9, pp.394-417, 1996.
- [23] 한은미,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외상경험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24] E. B. Foa, T. M. Keane, and N. J. Fridman, *Effective Treatments for PTSD: Practice Guideline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Guilford Pub, 2000.
- [25] S. Folkman and R. S. Lazarus,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 community sample,"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1, pp.219-239, 1980.
- [26] 조성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7] B. C. Leigh and A. W. Stacy,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Scale construction and predictive utility in higher order confirmatory models," Psychological Assessment, Vol.5, pp.216-229, 1993.
- [28] 김석도,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9] M. Bottlender and M. Soy, "Outpatient alcoholism treatment: predictors of outcome

after 3yea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80, No.1, pp.83-89, 2005.

[30] 정상경, 문황선, 김한오, 이규항, "알코올리즘 입원치료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퇴원 후 단기경과", 중독정신의학, 제1권, 제2호, pp.7-27, 2003.

[31] S. E. Kauffman, S. Paula, and P. John, "Gender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Social Work, Vol.42, No.3, pp.231-234, 1997.

저 자 소 개

우 재 희(Jea-Hee Woo)

정회원



• 2012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알코올중독문제, 사례관리, 외상경험과 재활.